

**특별기획**

# 정읍시, 특별교부세 11억 확보

## 신태인 지하차도 확장사업 등에 김생기 시장 발빠른 예산 고충 해결

김제시보건소 주민참여형

건강지도자 활성화 교육

김제시보건소(소장 박대만)는 주민참여형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위한 '건강지도자 활성화 교육'을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2일 동안 55명이 수료했다.

건강지도자란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지지자로서 건강생활 실천의 필요성 및 자가 건강 관리기술을 전파시키고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및 환경 조성 역할을 하는 건강한 지역주민으로 김제시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 건강백세체조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건강증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체지방 검사를 시작으로 스트레칭 등 운동의 이론과 실습을 겸하고 저염 및 영양 식이를 교육하며 직접 바나나 아몬드 셰이크를 만들어 먹는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참여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상반기 교육 만족도 조사 요구에 의한 치매예방관리 및 심뇌혈관계관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대상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을 실시했다.

김제시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눈높이에 맞는 건강수요정책을 지속적이고 꾸준히 발굴하여 펼쳐나가고 수혜자의 만족도를 끊임없이 모니터링, 김제시의 건강수준향상에 기여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펼쳐나간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 부안군, 공무원대상 규제개혁 특강

부안군(군수 김중규)은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알리기 위한 규제개혁 특강을 가졌다.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특강에는 지방규제개혁 스타공무원인 장정진 전남 합평군청 기획정책팀장을 초청했다.

장정진 기획정책팀장은 강의를 규제개혁의 본질, 규제는 왜 하는가?,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합평군 규제개혁 우수사례 소개 등 다양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장정진 팀장은 특강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과 인식변화 등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효과적인 규제개혁을 달성하는 절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특강이 부안군 공무원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부안군청 관계자는 "이번 특강을 통해 규제개혁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다"고 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정비를 통해 기업과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 정읍시, 김장쓰레기 무상 수거

정읍시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이달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 4주 동안 발생된 김장쓰레기를 무상 수거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간 소금에 절인 김장용 배추는 음식물 수거통에 버리고 채소류 등 소금에 절이지 않은 채소류는 속이 보이는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시는 "하지만 노곤 등 이물질과 일반 음식물 쓰레기 또는 생활 폐기물은 혼합하여 배출하거나 검정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은 수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김장쓰레기는 농촌 지역에서 농경지 등에 퇴비로 사용하거나 축산농가의 가축사료 등으로 활용하고 시내에서는 말려서 국거리 또는 정원 등의 퇴비로 사용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가 최근 신태인 지하차도 개설사업에 10억원과 마을공방 육성사업 1억원 등 모두 1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는 지난 7월 수립된 개설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한데 이은 결실이다.

이처럼 시가 특별교부세를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가고 있는 것은 김생기 시장을 중심으로 한 시의 적극적으로 발 빠른 예산확보 활동 성과로 평가된다.

김 시장은 사회복지 등의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세출 수요 충당과 열악한 인재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를 토대로 국외와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고 관계자들을 만나 현안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한편 이번 사업비를 확보한 신태인 지하차도 개설사업은 신태인을 급화동 일원에 총사업비 80억원을 들여 지하차도를 확장하고 연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의 장기(30년)고충 민원해결 사업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그간 신태인 지하차도는 도로 폭(차도 3m, 인도 2m)이 협소하고 급경사(26~29%)를 이루고 있어 농기계와 자전거, 전동휠체어 등의 통행이 어려웠던 사고가 빈번한데다 통행자들이 인도가 없는 고가도로인 과선교로 우회통행하면서 교통사고 발생 등의 불편과 위험이 따랐다.

주민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수차례 지하차도 개선을 요구했으나 사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한편 이번 사업비를 확보한 신태인 지하차도 개설사업은 신태인을 급화동 일원에 총사업비 80억원을 들여 지하차도를 확장하고 연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의 장기(30년)고충 민원해결 사업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그간 신태인 지하차도는 도로 폭(차도 3m, 인도 2m)이 협소하고 급경사(26~29%)를 이루고 있어 농기계와 자전거, 전동휠체어 등의 통행이 어려웠던 사고가 빈번한데다 통행자들이 인도가 없는 고가도로인 과선교로 우회통행하면서 교통사고 발생 등의 불편과 위험이 따랐다.

주민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수차례 지하차도 개선을 요구했으나 사

업 타당성 결여 등을 이유로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들과 함께 국민권익위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의 노력 끝에 신태인(호남선)철도를 횡단하는 지하차도를 2차선으로 확장,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지하차도는 연장 200m의 2차로(양측 인도 포함)로 개설되고 사업이 완료되면 우회도로 이용객은 과선교를 철거하게 되는데, 주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는 물론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원활한 물류 수송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마을공방 육성사업은 마을 단위 소규모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소득 창출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려고 부안군(군수 김중규)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발이 달도록 뛰어 다닌 결과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 부안군, 위도정수장 시설개량사업 등 10억 확보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려고 부안군(군수 김중규)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발이 달도록 뛰어 다닌 결과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를 위해 군은 수시로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을 설명하는 등 국가예산을 확보하려고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위도정수

장 시설개량사업 5억원과 신운천 상류 수질개선 사업 5억원 등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

위도정수장 시설개량사업은 섬지역에 위치하여 염기에 의한 부식과 노후가 심각한 정수장 시설을 개량하여 지역주민 및 탐방객에게 건강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추진 되는 사업이며, 신운천 상류 수질개선사업은 신운

천 상류 복개구간(부안 상설시장~신운천내 퇴적물 준설 및 일부 복개공사) 철거 등을 통해 악취 해소 및 수질개선과 생태하천복원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편 부안군은 앞으로도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 교월동새마을부녀회, 김제사랑장학재단에 1백만원 기탁

### 지평선축제 음식부스 운영 수익금을 장학사업 기금으로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이진식)은 1일 제18회 지평선축제에서 교월동새마을부녀회(회장 이영이)가 수익금 100만원을 김제의 미래를 만들어 갈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써 달라며 기탁했다고 밝혔다.

교월동새마을부녀회는 관내 노인들의 험터인 경로당을 방문해 사랑의 국수나누기 행사 등 노인들을 위한 밀란잔 전달, 동헌·내아와 향교 등 지역 문화재 청소하기, 지평선축제 코스

모스 꽃길 조성하기 등 지역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13년도에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1백만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랑에 앞장 서고 있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이영이 회장은 "김제의 많은 청소년들이 장래 꿈을 위해 경제적 걱정이 없이 학업에만 정진할 수 있도록 장학기금을 기탁하게 되었으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이를 계기로 자신들이 꿈꾸던 미래를 이루고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식 김제사랑장학재단 이사장은 "기탁하신 소중한 장학금은 미래의 김제를 만들어 가는 희망의 등불"이라고 말하고 "김제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 갈 지역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한편, 2007년 8월에 설립된 김제사랑장학재단은 현재까지 전국 지자체 최고액인 292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내고장학교보내기 사업 및 과감한 장학금 지원 사업,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 한국농업경영인 김제시연합회, 농식품부 장관상 수상

### 전국 으뜸농산물 한마당 대회서

(사)한국농업경영인 김제시연합회(회장 정영상)는 '생명이 숨 쉬는 안전한 먹거리'를 주제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수원시 농업·농촌진흥청에서 열린 제25회 으뜸농산물 한마당에서 김제 지평선 쌀이 농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진필)가 주최하고, 농림축산

식품부와 한국마사회, 농업중앙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생산된 곡류, 과일, 채소류, 화훼, 특작, 특산물 등 6개 부문 총 300여 농산물이 출품돼 ' 으뜸농산물'의 자리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벌였다.

이번 대회에 한국농업경영인 김제시연합회(회장 정영상)는 곡류부문에 김제 지평선 쌀을 출품하여 농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더불어 진봉 임선구 회원이 곡류부문에 출품한 흰찰쌀보리도 농산물품질관리원장상을 수상하

는 경쟁사를 맞았다. 대회 농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한 한국농업경영인 김제시연합회(회장 정영상)는 "앞으로도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쌀과 잡곡 등을 생산하는데 더욱 노력을 가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조기문 유봉식품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과 소중함을 깨우쳐 새로운 판로를 찾는 농가에게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정읍민속소싸움대회 성료

### 189두 열전 펼쳐... 백두급 완주 김영만씨 1등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전국 제일의 축산 도시 정읍의 내장산 농경문화체험관 옆에 마련된 특설 경기장에서 열린 제20회 정읍 전국민속소싸움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2만여 명의 관람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국에서 참가한 싸움소 189두가 열전을 펼친 이번 대회에서 백두급은 '완주전북 완주, 김영만', 한강급은 '서천(경북 대구, 김병훈), 태백급은 '작은 비호(경북 청도 최진호)' 각 체급별 1위를 차지해 각각 600만원과 500만원, 4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가을 단풍철을 맞아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찾아 연일 대만원을 이룬 가운데 치러진 이번 대회에서는 맑게는 1일 70여 경기가 진행되는 등 뜨거운 열기 속에 펼쳐졌다.

대회에서 싸움소들은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싸움소들답게 힘과 기술의 맞대결을 펼치며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박진감 넘치고 흥미진진한 시간을 선사했다.

특히 소싸움뿐만 아니라 전국과 정읍, 김성희, 조연비씨 등 인기가 수놓은 공연이 펼쳐져 대회 분위기를 한껏 높였고 전국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정읍 한우 시식회와 판매행사가 마련돼 인기를 모았다.

시 관계자는 "많은 관광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져 정읍한우의 우수성을 보다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정읍 소싸움대회가 전국 최고의 대회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현 소싸움장 부지에 113억원을 들여 야외 공연장과 축산전시체험센터, 동물조각공원, 축산물 및 농식품 판매장, 야외 관람 및 체험장 조성사업 등을 갖춘 축산테마파크를 건립할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다"며 "내년에 착공하여 2018년에 완공, 2019년부터 야외 공연장에서 소싸움 대회를 치를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 상동지구대, 내장산 행락질서 확립

정읍경찰서(서장 김주원) 상동지구대에서는 본격적인 내장산 단풍철을 맞아 전국에서 모여드는 행락객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활동과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한 달여간 내장산 공원치안센터를 파출소로 확대 운영하며, 전국 최고의 단풍명소인 내장산의 행락인과 증가로 인한 불법주정차, 기초질

서 위반 등 문란행위가 성행할 것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협조, 공원 주변 상가를 중심으로 문안순찰을 병행하며 질서확립에 집중적으로 주력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를 비롯한 유관기관들과 적극 협조체제를 구축해 행락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시와 추진위는 이날 한우고기 1천100kg을 사회복지시설 24개소와 지역이동센터 29개소 등 총 170개소에 전달했다.

## “오늘은 한우고기 먹는 날이에요”

### 정읍시·한우 먹는 날 공동추진위원회, 고기 전달식

정읍시와 '한우 먹는 날' 공동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1월 1일 대

회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를 돕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추진위에는 순정축산협동조합(조합장 최기환)과 전북한우협동조합(조합장 김창희), 전국한우협회 정읍시지부(지부장 박승술), 단풍마인한우농조합(대표 김준영), 전북육종협동조합(대표 한양수)가 참여하고 있다.

시와 추진위 관계자는 "최근 김영란법 시행 등에 따라 한우 소비가 위축